

〈동명왕편〉의 기술성의 성격과 의미

손정인*

|| 차례 ||

1. 머리말
2. <동명왕편>의 기술성의 성격
3. <동명왕편>의 기술성의 의미
4.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이규보의 <동명왕편>을 記述性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병서를 검토하여 이 작품의 기술성의 성격을 이해한 다음, 작품에 나타난 기술성을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 그 구체적 의미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이규보는 <동명왕편>이라는 한 작품 안에서 ‘사실의 기록’, ‘의식의 전환’, ‘현실 비판’ 등을 한꺼번에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규보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명왕편> 속에서 시도한 글쓰기의 기술성을 ‘기록을 통한 기술성’, ‘표현을 통한 기술성’, ‘구성을 통한 기술성’의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 층위에 따른 기술성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규보는 <동명왕편>에서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의 내용을 註로 부기하여 기록하는 방법에 의해 우리 고대문화의 전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둘째, 이규보는 천하 사람의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동명왕편> 본시에서 해모수와 동명왕의 ‘신이한 일’을 충실히 표현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주관의 첨가’, ‘설명의 부연’ 등의 다양한 표현을 시도하였다.

셋째, 이규보는 서사시인 <동명왕편>의 앞뒤에 비서사적 부분을 넣어 작품 전체 안에서 유기적으로 기능하도록 구성함으로써 자신의 창작 의도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 대구한의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이규보는 <동명왕편>이라는 한 작품 속에 기술성의 세 가지 층위를 모두 설정하여 자신의 창작 의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주제어 : 이규보, 동명왕편, 동명왕편 병서, 주몽신화, 민족서사시, 구삼국사, 삼국사기, 기술성.

1. 머리말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우리 문학사에서뿐만 아니라 사학사에서도 각별한 의의를 지닌 작품이다.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초 장덕순 교수와 이우성 교수에 의해 시작되어, 이제는 연구사를 검토하기 버거울 정도로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¹⁾ 그 결과 <동명왕편>에 대한 이

1) 기존의 연구 가운데 <동명왕편>을 직접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은 논문만 하더라도 거의 30편에 달한다. 여기에서는 본고의 입장에서 주목되는 것만 소개하여 두기로 한다.

장덕순, 『영웅 서사시 <동명왕>』, 『국문학통론』(신구문화사, 1960)

이우성, 『고려중기의 민족서사시-동명왕편과 제왕운기의 연구-』, 『논문집』 제7집(성균관대학교, 1962)

박두포, 『민족영웅 동명왕설화고』, 『국문학연구』 제1집(효성여자대학 국어국문학연구실, 1968)

박창희, 『이규보의 <동명왕편>시』, 『역사교육』 제11·12합집(역사교육연구회, 1969)

신용호, 『이규보의 <동명왕편> 연구』, 『어문논집』 제21집(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980)

탁봉심, 『<동명왕편>에 나타난 이규보의 역사의식』, 『한국사연구』 제44집(한국사연구회, 1984)

김철준, 『이규보 <동명왕편>의 사학사적 고찰』, 『동방학지』 제56집(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5)

손정인, 『이규보의 <동명왕편>의 구성양상과 작품의 성격』, 『영남어문학』 제13집(영남어문학회, 1986)

김경수, 『<동명왕편>에 대하여』, 『동양학』 제21집(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1)

황순구, 『서사시 동명왕편 연구』(백산출판사, 1992)

박일용, 『동명왕설화의 연변양상과 <동명왕편>의 형상화 방식』, 성오 소재영 교수

해는 이미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초기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창작 동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 시각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작품 자체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해명되어야 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그 가운데 하나로서 이 작품의 記述性을 해명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동명왕편>은 우리 민족 최초의 장편서사시라고 평가되고 있지만, 작품 전체가 서사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작품의 앞과 뒤에는 상당한 분량의 비서사적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5언의 282구의 본시에 2210자에 달하는 註가 부기된 특이한 형식의 작품이다. 이규보는 <동명왕편>의 병서에서 이 작품의 창작 동기를 말하면서 詩의 ‘記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몇 가지 점들은 이규보가 이 작품을 지으면서 기술성을 상당히 의식하였을 것임을 시사해 준다.

그 사이에 진행된 여러 연구에서 이 작품의 기록성에 대해서는 관심하였으나, 기술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동명왕편>을 기술성이라는 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병서를 검토하여 이 작품의 기술성의 성격을 이해한 다음, 작품에 나

환력기념 논총, 『고소설사의 제문제』(집문당, 1993)

김승룡, 「<동명왕편>의 서사시적 특질과 창작의식」, 『어문논집』 제32집(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993)

김병권, 「<동명왕편>序의 서사시이론적 탐색」, 『초전 장관진 교수 정년기념국문학 논총』(세종출판사, 1995)

노명호, 「<동명왕편>과 이규보의 다원적 천하관」, 『진단학보』 제83집(진단학회, 1997)

이종문, 「<동명왕편>의 창작동인과 문학적성」, 김건곤 외 공저, 『고려시대 역사시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박성지, 「<동명왕편>에 나타난 신이의 의미」, 『이화어문논집』 제20집(이화어문학회, 2002)

하승길, 「<동명왕편>의 성격에 대한 재론-창작동기와 신이성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52집(한국어문학연구회, 2009)

타난 ‘記述性’의 충위를 살펴, 그 총체적 의미를 해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궁극적으로 이 작품의 창작 동기를 점검해 보는 것과도 밀접히 관련될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기술성의 개념은 사전적·일반적인 개념과는 다르다. 여기에서의 기술성의 개념에는 작품의 전체적인 틀을 구성하고 작성할 때 갖게 되는 인식론적 패턴 내지 사유방식 및 이러한 사유체계에 의해 언표화되는 표현론적인 특징들이 포함된다.²⁾

2. 〈동명왕편〉의 기술성의 성격

〈동명왕편〉의 병서는 작품의 창작 경위와 창작 동기 등을 포함하여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다. 그 동안 〈동명왕편〉에 대한 논의에서 거의 빠짐없이 병서가 거론되었지만, 병서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많지 않은 형편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병서의 내용을 의미상으로 여섯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검토한 다음, 기술성의 문제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가) 세상에서는 동명왕의 신이한 일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비록 어리석은 사내와 어리석은 아낙네라 하더라도 역시 자못 그 일을 얘기한다. 내가 일찍이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옛 스승이신 공자께서는 怪力亂神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것은 실로 황당하고 기괴한 일이니 우리들이 얘기할 것이 못된다.”라고 하였다.

(나) 뒤에 『魏書』와 『通典』을 읽어 보니 역시 그 일을 실었으나 간략하여 자세하지 못하였으니, 아마도 국내의 것을 자세히 서술하고 외국의 것을 간략

2) 김현주, 『구술성과 한국서사전통』(도서출판 월인, 2003), p.19. 참조.

하게 서술하려는 뜻이 아닐까.

(다) 지난 계축년 4월에 『舊三國史』를 얻어 『東明王本紀』를 보니 그 신이 한 사적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했다. 그러나 역시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鬼나 幻으로만 생각하였는데, 세 번 반복하여 탐독하고 완미하여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가니, 幻이 아니고 聖이며, 鬼가 아니고 神이었다. 하물며 국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쓴 책이니 어찌 허탄한 것을 전하였으랴.

(라) 김부식공이 국사를 다시 편찬할 때에 자못 그 일을 간략하게 다루었으니, 생각건대 공은 국사는 세상을 바로 잡는 책이니 크게 이상한 일은 후세에 보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간략하게 쓴 것이 아닐까.

(마) 『唐玄宗本紀』와 『楊貴妃傳』을 살펴보면, 두 군데 모두 方士가 하늘에 오르고 땅에 들어갔다는 일이 없는데, 오직 시인 白樂天만이 그 일이 인멸될 것을 두려워하여 노래를 지어 기록하였다. 저것은 실로 황당하고 음란하고 기괴하고 허탄한 일인데도 오히려 읊어서 후세에 보였거든, 하물며 동명왕의 일은 변화의 신이한 것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고 실로 나라를 창건한 신이한 사적이니 이것을 기술하지 않으면 후세 사람들이 장차 어떻게 볼 것인가?

(바) 그러므로 시를 지어 기술하여 무릇 천하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본래 聖人の 나라라는 것을 알도록 하고자 할 뿐이다.³⁾

3) “世多說東明王神異之事。雖愚夫騃婦，亦頗能說其事。僕嘗聞之笑曰，先師仲尼，不語怪力亂神。此實荒唐奇詭之事，非吾曹所說。及讀魏書通典，亦載其事，然略而未詳，豈詳內略外之意耶。越癸丑四月，得舊三國史，見東明王本紀，其神異之迹，踰世之所說者。然亦初不能信之，意以爲鬼幻。及三復耽味，漸涉其源，非幻也，乃聖也，非鬼也，乃神也。況國史直筆之書，豈妄傳之哉。金公富軾，重撰國史，頗略其事，意者公以爲國史矯世之書，不可以大異之事，爲示於後世，而略之耶。按唐玄宗本紀，楊貴妃傳，並無方士升天入地之事，唯詩人白樂天，恐其事淪沒，作歌以志之。彼實荒淫奇誕之事，猶且詠之，以示於後，矧東明之事，非以變化神異眩惑衆目，乃實創國之神迹，則此而不述，後將何觀。是用作詩以記之，欲使夫天下知我國本聖人之都耳。”，<동명왕편> 병서. 『東國李相國集』 전집 권3.

(가)에서는 그 당시 동명왕신화⁴⁾의 구비전승의 실태와 동명왕신화에 대한 이규보 자신의 초기 인식태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그 당시 동명왕의 사적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두 가지 인식·수용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愚夫騃婦로 표상되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인식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공자를 선사로 받들던 유학자들의 인식태도이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동명왕의 ‘신이지사’를 진실되고 신성하다고 인식하여 많이 이야기하고 있음에 비해, 중세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유학자들은 그것을 ‘괴력난신’ 정도로 받아들여 입에 담지 않으려 했다.

(가)에서 주목되는 점은, “세상에서는 동명왕의 신이한 일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의 ‘세상 사람들’은 모든 지역의 사람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어느 특정 지역의 사람을 지칭하는지 하는 점이다. 이규보는 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점은 우부애부들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일찍이 들어보았다.(僕嘗聞之)”는 언급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이규보가 <동명왕편>을 짓기 (훗썬) 이전에 설화를 들었다는 시간성과 설화를 직접 들었다는 현장성을 고려할 때, 여기에서 말한 ‘세상 사람’은 그가 태어난 여주지방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가 자란 개경지방의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⁵⁾

(나)에서는 중국의 역사서인 『魏書』와 『通典』에는 동명왕의 일이 실려

4) 부여 건국신화인 동명신화와 고구려 건국신화인 주몽신화의 관계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이를 동일한 신화로 보는 견해와 별개의 신화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이복규, 『동명신화와 주몽신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성과 검토』, 『국제어문』 12·13합집, 국제어문학회, 1991, pp.199~222. 참조.) 본고에서는 후자의 처지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본고에서 말하는 동명왕신화는 동명신화가 아니라 주몽신화를 가리킨다.

5) 정구복 교수는 “고구려 시조의 신화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지역은 고구려의 문화적 전통이 강하게 존속되어 온 한강 이북 지역의 주민에 한할 것”이라는 점에서 여주지방이 아니면 개경지방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정구복, 『한국중세사학사(I)』(집문당, 1999), p.81.

있기는 하되 간략하여 자세하지 못하였다고 했다. 그것은 자국의 것은 자세히 서술하고 외국의 것은 간략하게 서술하려는 중국인의 자국중심주의적 서술태도에 기인한다.

『위서』는 554년에 魏收가 편찬한 북위의 역사서이다. 북위와 고구려는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었고 접촉이 많아서 『위서』 列傳의 「고구려전」은 분량도 중국의 다른 역사서보다 많으며 내용도 자세한 편이다. 이 책의 「고구려전」에 실린 고구려 건국신화는 그 이전의 중국의 역사서들에 실린 東明神話가 아니라 朱蒙神話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위서』는 중국 측의 역사서 가운데 주몽신화에 관한 한 가장 자세하고 충실한 기록이다.

이에 비해 801년에 편찬된 『통전』의 「변방 동이하 고구려」에는 건국신화가 지극히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 자료에는 시조의 탄생과 부여 탈출 후 고구려 건국 사실만 간략히 소개되어 있다.⁶⁾

『위서』에서 「고구려전」은 열전 속에 들어 있다. 중국의 역사서에 외국(고구려)에 대한 기록이 열전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중국인의 역사관 내지는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다. 고대 중국의 관념에서는 중국이 유일한 세계이며, 유일한 세계의 중심이었다. 이러한 華夷論的 천하관에서 보면, 중국 이외의 다른 세계, 다시 말해서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외국은 존재할 수 없었다.⁷⁾

이러한 역사관 내지 세계관을 지닌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의 성인이나 영웅은 인정하여 자세히 서술하되, 다른 나라의 성인이나 영웅의

6) “高句麗後漢朝貢，云，本出於夫餘，先祖朱蒙。朱蒙母河伯女，爲夫餘王妻，爲日所照，遂有孕而生。及長，名曰朱蒙，俗言善射也。國人欲殺之，朱蒙棄夫餘，東南走，渡普述水，至紇升骨城，遂居焉。號曰句麗，以高爲氏。”，『通典』 제186권, 邊防 東夷下 高句麗. 『위서』와 통전』의 고구려 건국신화에 대한 원문과 번역은 이복규, 『부여·고구려 건국신화 연구』(집문당, 1998), 이지영, 『한국 건국신화의 실상과 이해』(도서출판 월인, 2000). 해당 자료 참조.

7) 이정자, 『고대 중국정사의 고구려 인식』(서경문화사, 2008), p.34.

신이란 사적은 간략하게 서술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에서는 동명왕의 신이란 일에 대한 『구삼국사』 『동명왕본기』의 기록이 일반 백성들의 구술보다 자세하였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구전 건국신화와 문헌 건국신화 간의 보존능력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당시에는 건국 서사시에서 파생되어 세속화된 구전 건국신화와 역사화된 문헌 건국신화는 서로 다른 경로로 함께 전승되고 있었다. 구전 건국신화는 건국 서사시의 소멸과 더불어 약화된 형태로 이어졌음에 비해, 장기 보존 능력을 지닌 문헌 건국신화는 가장 후대에까지 지속적으로 전승된다.⁸⁾ 둘째, 구전 건국신화가 갖고 있는 보수성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애초 건국 서사시에는 없던 해모수 신화 등이 후대에 문헌 건국신화에 습합되었으나, 구전 건국신화는 구술성이 갖는 보수성이나 전통성⁹⁾ 때문에 습합된 신화를 그때그때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규보는 역시 처음에는 『구삼국사』 『동명왕본기』의 기록을 믿지 않다가 의식의 전환을 거쳐 믿을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였다. 이렇게 의식을 전환하게 된 것은, 물론 세 번 반복하여 탐독하고 완미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결정적 계기는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가니(漸涉其源)”라고 했을 때, 그 ‘근원’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것이다. 이 ‘근원’을 파악하는 것은 이규보가 천하의 의식을 전환시키고자 수행한 작업을 이해하는 것과 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 점은 병서의 언급만으로는 잘 알 수 없고, 작품 자체를 자세히 살펴

8) 건국 서사시, 구전 건국 서사시, 문헌 건국 서사시의 관련 양상에 대해서는, 조현설,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역사와 논리』(문학과 지성사, 2003), pp.369~374. 참조.

9) 웅은 구술성의 특징 중의 하나로서 보수성(전통성)을 들고 있다. 월터 J. 웅 지음·이기우, 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문예출판사, 1995), pp.67~69.

야만 알 수 있을 것이다.

(라)에서는 동명왕의 신이한 일에 대한 『구삼국사』와 『삼국사기』의 서술상의 차이를 말하고, 『삼국사기』에 반영된 김부식의 역사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즉 『구삼국사』는 ‘直筆之書’로서 사실 그대로 쓴 것임에 비해, 『삼국사기』는 ‘矯世之書’로서 동명왕의 신이한 일을 크게 이상한 일로 여겨 대폭 생략한 것이라고 보았다. 김부식은 초인간적인 힘에 의지하는 『구삼국사』의 사관에 불만을 품고, 治者가 정치적 귀감으로 삼을 만한 중세 보편적 이상을 펼쳐 보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유교적 도덕사관’, 혹은 ‘합리주의 사관’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¹⁰⁾

역사서술에 대해서는 크게 보아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그 하나는 역사는 고대의 기록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는 옛날의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기록해 두는 것이 아니라 읽히는 역사로서 교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규보는 역사서술에 대한 『구삼국사』의 입장을 전 자에, 『삼국사기』의 입장을 후자에 연결시키고 있다. 고려 초에 편찬된 『구삼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부식이 삼국의 역사를 다시 쓴 것도 다 이러한 역사관의 차이 때문이다.¹¹⁾ 즉 김부식은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편찬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교훈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훈적인 역사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¹²⁾

10) 이기백 교수는 김부식의 사관을 ‘유교적 도덕사관’, 혹은 ‘합리주의 사관’으로 보았다. 이기백, 『삼국사기론』, 『한국사학의 방향』(일조각, 1978), p.21.

11) 정구복 교수는 김부식이 삼국의 역사를 다시 쓴 이유에 대해 역사관의 차이, 문체상의 문제, 고구려 계승 의식에서 신라 계승 의식으로의 전환 등 크게 세 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정구복, 『삼국사기의 현대적 이해』(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pp.12~18. 참조.

12) 김부식은 『進三國史記表』에서 장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도 마땅히 ‘우리 역사’를 다시 써서 ‘후세의 교훈’을 삼고자 한다는 편찬동기와 목적을 밝히고 있다.

(마)에서는 동명왕의 신이한 일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달하고자 하는 명분과 당위성을 말하고 있다. 이규보는 그것을 기록하는 당위성을 말하기 위한 방편으로 백락천의 <장한가>를 들고 있다.

이규보는 <장한가>의 창작 동기를 일차적으로 후세에 길이 남기고자 하는 ‘기록성’에 두고 있다. 실제 <장한가>의 창작 경위가 언급된 陳鴻의 <長恨歌傳>에 의하면, <장한가>는 백락천이 왕질부의 권유에 따라 세상에 보기 드문 일을 윤색하여 남기지 않는다면 사라져서 세상에 전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지은 것이다.¹³⁾

이규보는 백락천이 方士의 ‘升天入地之事’가 역사기록에도 없는 ‘황음기탄지사’로서 못사람의 이목을 현혹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후세에 보이기 위해 애써 노래를 지어 기록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동명왕의 사적은 ‘양귀비 고사와 관련된 방사 이야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성한 ‘창국지신적’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명왕신화의 전승·전달의 상태는 어떠한가? 비록 배운 것 없는 어리석은 백성들은 동명왕신화를 ‘多說’하고 ‘能說’하고 있지만, 그들의 구술을 통해 전승되어 오는 내용은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보다 자세하지 못하였다.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의 기록의 전달상태는 어떠한가? 그 당시부터 벌써 『구삼국사』는 稀本이어서 접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었다. 이규보가 『구삼국사』를 중국의 역사서인 『위서』와 『통전』보다 뒤에 얻어 볼 수 있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후세 사람들이 『구삼국

13) “元和元年冬十二月，太原白樂天自校書郎尉於藍屋，鴻與瑯琊王質夫家於是邑，暇日相携游仙游寺，話及此事，相與感歎，質夫舉酒於樂天前曰：夫希代之事，非遇出世之才潤色之，則與時消沒，不聞於世。樂天深於詩，多於情者也。試爲歌之如何？樂天因爲長恨歌，意者不但感其事，亦欲懲尤物窒亂階，垂戒於將來也。歌既成，使鴻傳焉。世所不聞者，予非開元遺民，不得知，世所知者，有玄宗本紀在。今但傳長恨歌云爾。”，陳鴻，〈長恨歌傳〉，王夢鷗 校釋，『唐人小說校釋』（臺北：正中書局，1983），p.108.

사』를 구해 보기는 더욱 어려울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규보는 동명왕신화의 온전한 내용이 인멸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기록하고자 작시한 것이다.

<장한가>에서 당현종은 양귀비가 죽은 뒤에 슬픔을 이기지 못해 인공 도사를 청하여 하늘과 땅을 뒤져 그 혼백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하늘 위, 땅 밑을 헤매던 방사는 그녀의 혼백 찾기에 실패한다.¹⁴⁾

이규보가 <장한가> 중에서 특히 방사의 ‘승천입지지사’를 ‘황음기탄지사’라고 거론하고 나선 것은 <동명왕편>에 나오는 ‘신이지사’를 의식한 지적이다. <동명왕편>에도 ‘승천입지지사’와 같은 내용이 나오지만, <장한가>와는 달리 어디까지나 역사에 기록된 내용으로서 신이하다는 것이다. 즉 ‘해모수가 朝夕으로 천상 세계와 지상 세계를 왕래하는 대목’, ‘해모수가 해궁에 들어가고 하늘에 오르는 장면’, 동명왕이 죽은 후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화소’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규보는 <동명왕편> 본시에서 이러한 장면을 적절히 시화함으로써 고구려 건국의 신이성을 크게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규보는 <장한가>에 대해, 한편으로는

<비파행>과 <장한가> 같은 것은 당시에 이미 중국과 그 주변의 나라에 이미 성하게 전하여, 樂工과 娼妓까지도 그 歌行을 배우지 못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으니, 만일 淺近한 사연이었다면 능히 이처럼 될 수 있겠는가?¹⁵⁾

라고 하여 그 내용이나 문학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사실 <장한가>의

14) <장한가>의 방사의 ‘승천입지지사’ 대목은 다음과 같다. “하늘로 솟아 대기를 타고 번개처럼 달려가, 하늘에 오르고 땅 속으로 들어가 두루 찾았네. 위로는 하늘 높은 곳까지 아래로는 황천까지 가 보아도, 두 군데 모두 아득하게 찾을 수 없었네. (排空馭氣奔如電, 升天入地求之遍. 上窮碧落下黃泉, 兩處茫茫皆不見.)”

15) “其若琵琶行長恨歌, 當時已盛傳華夷, 至於樂工娼妓, 以不學此歌行為耻. 若涉近之辭, 能至是耶.” 『書白樂天集後』, 『東國李相國集』 後集 권11.

큰 의미는 백락천이 현종과 양귀비의 고사에 감동되어 고사 자체를 감성화하고, 주인공들의 내면세계를 진실되게 그려낸 점에 있다.¹⁶⁾ 어쩌면 시에 뛰어난 백락천이 ‘희대지사’를 시화하여 <장한가>를 지었듯이,¹⁷⁾ 동명왕의 ‘창국지신적’인 ‘신이지사’를 시화하여 <동명왕편>을 짓고자 한 이규보의 마음속에는 백락천이 <장한가>를 통해 이룩한 문학적 성과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과시하고자 한 뜻도 있었을 것이다.¹⁸⁾

(바)에서는 시를 지어 기술하여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라는 것을 알도록 하고자 할 뿐이라고 하였다. 이규보가 동명왕의 신이한 일을 시로 기술해야 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것을 후세에 전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가 성인의 나라임을 천하에 알리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어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니다. 우리는 (바)에서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이규보가 ① 이 시를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임을 모르고 있는 ‘천하 사람을 대상’으로 창작하였으며, ② 천하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써 ‘시를 지어 기술’하였으며, ③ ‘이러한 창작 목적 외에는 별다른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의 세 가지의 문제를 차례로 살펴보자. 첫째, 여기에서 ‘천하’가 지칭하는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다. ‘천하’란 천명에 의해 지배하

16) 전보옥, 『중국 고전 서사시의 고사 성립 배경(IV)-<장한가>로 본 당대 서사시의 발전 양상-』, 『중국어문학논집』 제28호(중국어문학연구회, 2004), p.328.

17) “質夫舉酒於樂天前曰。夫希代之事，非遇出世之才潤色之，則與時消沒，不聞於世。樂天深於詩，多於情者也。試爲歌之如何？樂天因爲長恨歌。”，陳鴻，〈長恨歌傳〉，王夢鷗 校釋， 앞의 책， p.108.

18) 이종문 교수는 백락천의 <장한가>를 <동명왕편> 창작에 충동을 제공한 배경적 요소의 하나로 들고서, ‘시인으로서의 역사적 소명 인식’과 ‘<장한가>를 압도하려는 강렬한 문학적 야심’을 지적하였다. 이종문, 앞의 논문, 앞의 책, p.39.

는 범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대 중국인의 천명사상과 깊이 관련된 개념이다. 이러한 ‘천하’라는 세계 개념에 포함된 정치적 의미와 공간적 범주는 시대의 경과에 따라 그 내용이 변해 왔다.¹⁹⁾

그런데 천하관은 중국의 중화주의적 세계관에 의한 독점적인 것이 아니었다. 고려 시대에도 그 나름의 천하관이 있었지만,²⁰⁾ 이미 고구려에도 자존적인 천하관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 5세기 전반에 쓰여진 『牟頭婁墓誌』(이하 ‘묘지’로 줄임)의 첫머리의 다음 내용이 주목된다.

하백의 손자시요, 해와 달의 아들이신 추모성왕께서는 원래 북부여에서 나오셨다. 천하 사방이 이 나라가 최고로 성스러움을 알았다.²¹⁾

이 인용문 끝에 나오는 “天下四方, 知此國都最聖”과 병서(바)의 “欲使夫天下, 知我國本聖人之都耳”라는 내용은 둘 다 추모성왕(주몽)과 관련하여 ‘천하’의 인식이 어떠하며, 또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묘지’의 ‘천하’의 의미는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사방의 온 세상”을 뜻한다. 즉 고구려왕의 권위가 미치는 또는 미쳐야 한다고 여기는 지역 공간이 곧 당시 고구려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자신들의 천하였다.²²⁾

그렇다면 ‘묘지’에서의 ‘천하’와 이규보가 (바)에서 말한 ‘천하’는 의미상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묘지’에서 말한 천하는, 그 표현 방식에 따르면,

19) 김한규, 『고대중국적세계질서연구』(일조각, 1981), pp.7~8. 참조.

20) 고려 시대에는 크게 세 가지 천하관, 즉 화이론적 천하관, 자주적 천하관, 다원적 천하관이 발견된다. 노명호, 앞의 논문, p.314. 참조.

21) “河伯之孫, 日月之子, 鄒牟聖王出自北夫餘, 天下四方, 知此國都最聖□□”, 『牟頭婁墓誌』, 이복규, 앞의 책, p.96.

22) 노태돈, 『금석문에 보이는 고구려인의 천하관』, 『고구려사 연구』(사계절, 1999), pp.358~361.

고구려가 성스러운 나라임을 아는 사방의 지역²³⁾이었다. 이에 비해 (바)에서 말한 ‘천하’는 고려가 본래 성인의 나라임을 모르고 있는 모든 대상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만이 천하의 중심이라는 華夷論的 천하관을 지닌 중국 사람, 고려왕의 권위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국토 안에 있으면서도 고려가 본래 성인의 나라임을 모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 공자의 뜻에 따라 동명왕의 ‘신이지사’를 ‘괴력난신’이라고 하며 믿지 않은 중세 합리주의적 사관을 지녔던 고려 당대의 유학자 등 다양한 뜻이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⁴⁾

이규보는 동명왕신화를 통해 고려가 본래 신성한 나라임을 내세우고자 하였다. 즉 <동명왕편> 서두에서 중국의 고대 신성한 사적과 동명왕신화의 신성한 사적을 나란히 비교하면서, 우리나라도 중국과 같은 신성한 나라에서 출발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고려가 본래 중국과 견줄 수 있는 천하의 신성한 나라라는 관념은 고려가 천하의 중심적인 국가라는 천하관과 그대로 연결된다. 이러한 관념은 당시 고려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던, 고려도 천하의 중심이라는 多元的 天下觀의 영향이다.²⁵⁾

둘째, “시를 지어 기술하고자 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규보는 백락천의 <장한가>를 의식하면서 상대적으로 <동명왕편> 창작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이규보는 백락천이 『당현종본기』와 『양귀비전』과 같은 역사서에도 없는 ‘황음기탄지사’를 시로 읊었다면, 자신은 ‘직필지서’인 『구삼국사』 『동명왕본기』에 수록된 ‘창국지신적’을 기술하려 하였다. 이규보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하여 전하면서,

23) 노태돈, 같은 글, 같은 책, p.361.

24) <동명왕편> 병서의 ‘천하’를 박창희 교수는 “三韓 天下”로 해석하고 있으며(박창희, 『무신 정권 시대의 문인』, 『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84. p.274.), 이종문 교수는 “三韓 천하를 가리키는 동시에 그야말로 온 천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종문, 앞의 논문, 앞의 책, p.26.)

25) 노명호, 앞의 논문, p.303.

한편으로는 ‘천하 사람’의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이 효과적임을 알았다.

이규보가 동명왕의 신이한 일을 후세에 전하려고만 했다면, 굳이 시라는 형식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기록성과 전달성만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산문으로 기술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며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규보는 ‘사실의 전달’과 천하의 ‘의식의 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이루고자 하였다. 사실을 기록하여 전달하는 한편으로, 그 자신이不信에서 信으로 의식을 전환한 것처럼 천하의 의식도不信에서 信의 상태로 전환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의 믿음에서 나아가, 믿음에 따른 사실의 이해와 재해석을 통해 천하의 의식을 無知에서 知의 상태로, 不覺에서 覺의 상태로까지 끌어올리고자 하였다.

셋째, 과연 이처럼 겉으로 내세운 창작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은 없는가 하는 점이다. 진흥은 백락천이 <장한가>를 지은 것에 대해 “그 이야기(당현종과 양귀비의 이야기)에 감동해서이기도 하지만, 빼어난 미인들에 대해 경계하고, 미혹함을 막아서 장래 이런 일에 대해 경계하려 함이다.”²⁶⁾라고 하였다. 진흥의 <장한가전>도 양면적 성격을 지닌다. 이 작품은 “보는 각도에 따라 애정류나 역사고사류에 속한다. 바로 애정만이 주제로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통치자의 荒淫無恥한 생활을 폭로했기 때문이다.”²⁷⁾

<장한가>와 <장한가전>이 통치자들이 미인에 의해 미혹됨을 경계하거나 그들의 荒淫을 폭로하고 있다는 점은 <동명왕편>을 창작할 당시의 이규보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 있다. 이규보는 <동명왕편> 끝에서 “이제야 알겠다 守成君은, 신고한 땅에서 작은 일에 조심하여, 너그럽고 어짐으로써 왕위를 지키고, 禮와 義로써 교화해야 한다”²⁸⁾라고 하였

26) “樂天因爲長恨歌，意者不但感其事，亦欲懲尤物窒亂階，垂戒於將來也。”，陳鴻，〈長恨歌傳〉，王夢鷗校釋， 앞의 책， p.108.

27) 허세욱, 『중국고대문학사』 (법문사, 1986), p.412.

다. 이 말은 너그럽고 어질지 못한 당대의 군왕²⁹⁾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⁰⁾

이상에서 병서를 검토한 바를 기술성과 관련하여 정리하여 보자. 이규보는 동명왕의 일이 인멸될 것을 두려워하여 기록하여 전하는 한편으로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성인의 나라임을 알도록 하였다. 그리고 작품의 문면에 크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너그럽고 어질지 못한 당대의 군왕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사실의 기록’, ‘의식의 전환’, ‘현실 비판’ 등을 한 작품에서 한꺼번에 실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규보는 <동명왕편>에서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글쓰기의 기술성을 적극 의식하였을 것이라고 본다.

3. <동명왕편>의 기술성의 의미

여기에서는 <동명왕편>의 기술성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 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필 수 있다. 첫째는 구술적인 말하기(oral speech)와의 비교를 통해서이다. 병서 (가)에서, 세상에서는 동명왕의 ‘신이지사’를 많이 말하고, 심지어 배운 것 없는 미천한 백성들까지도 능히 그 일을 얘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일자무식꾼들도 얼마든지 자연스레 동명왕의 ‘신이지사’를 구술로 말할 줄 안다는 말이다. 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28) “乃知守成君，集蓼戒小愆，守位以寬仁，化民由禮義.”，<동명왕편> 277구~280구.

29) 이규보는 <동명왕편>을 26세 되던 1193년(명종 23년)에 지었다. 『고려사』의 많은 자료를 살펴도 명종의 선정은 별로 찾을 수 없는 반면에, 태황무능한 모습만이 다수 드러난다. 박창희, 앞의 논문, pp.184~187. 참조.

30) 이규보는 <동명왕편>을 지은 다음 해에 <開元天寶詠史詩> 병서에서 “그 당시 善惡이 다 임금의 영도에 의한 것(其時善惡，皆上化之漸染)”이라고 하여 당시의 타락상의 모든 책임을 군왕에게 돌리고 있다. 이 시에서는 당현종의 사치와 퇴폐행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빌려 와 고려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자 하였다.

갖고 동명왕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밑바탕에는 동명왕의 ‘신이지사’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다. 이규보는 그들이 벽찬 감격으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지만, ‘괴력난신’을 말하지 말라는 공자님의 말씀에 따라 믿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 말은 일차적으로 중세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유학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말은 구술로 하는 말하기는 그것이 아무리 유창하고 다변적인 말하기라 하더라도, 그러한 이야기만으로는 세계관·역사관이 다른 청자의 의식을 전환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된다. 특히 인간의 의식을 ‘불신’에서 ‘믿음’의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쓰기(writing)가 요청된다.

둘째는 기술물과의 비교를 통해서이다. 그러면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는 쓰기(writing)에 의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물론 쓰기는 쓰기이다. 그러나 문자로 쓰여졌다고만 해서 인간의 의식을 전환시킬 수는 없다. 이 단계의 쓰기는 인간의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도의 쓰기는 아니다. 이규보는 세상에서 얘기한 것보다 신이한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를 읽어 보고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鬼나 幻으로만 생각하였다고 했다. 그 후 세 번 반복하여 탐독하고 완미하여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가니 幻이 아니고 聖이며, 鬼가 아니고 神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인식의 전환을 이루기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특히 그 ‘근원’은 많이 읽어 본다고 해서 쉽사리 찾아낼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규보는 동명왕의 ‘신이지사’에 대해 독자들로 하여금 의식의 전환을 이루도록 하자면 그만한 기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쓰기를 하나의 기술이라고 본 웅(On)의 견해³¹⁾를 살펴보자. 그는 “쓰기는 의식을 재구조화한다. 쓰기는 하나의 기술이다.”라는 명제를 설명하면서, 쓰기는 인간의 의식을 내적으로 변화시켜 주

31) 월터 J. 웅, 앞의 책, pp.128~130. 참조.

는 하나의 인공적 技術이지만, 이 기술도 적절한 방식으로 내면화된다면 인간생활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하였다. 옹의 말은, 인간의 의식을 변화(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백 마디의 말보다 인공적이지만 고도로 내면화된 쓰기[記述]의 기술(technology)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필자는 이규보가 <동명왕편>의 병서의 끝에서, “그러므로 시를 지어 기술하여 무릇 천하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본래 聖人の 나라라는 것을 알도록 하고자 할 뿐이다.”라고 한 말을, 옹(Ong)의 견해와 관련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이규보는 천하를 향해 “우리나라는 본래 성인의 나라”라는 사실을 아무리 설파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의식을 전환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서 시적 기술(장치)을 통해 그들의 의식을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동명왕의 ‘신이지사’에 대한 믿음과 그에 따른 의식의 전환은 본격적인 쓰기인 <동명왕편>에 와서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겠다.

<동명왕편>의 기술성을 해명하는 작업은 일차적으로 병서에서 밝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장치적인 면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될 것이다.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자면, 그들의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규보가 작품을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시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천하 사람의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어떠한 배려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시적 표현, 작품의 구성 등을 포함한 <동명왕편>의 기술성은 나라심한(R. Narasimhan)이 말한 기술성의 층위에서 살필 수 있겠다. 나라심한은 기술성의 층위를 실제적인 차원에서 보다 자세하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 즉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상태의 기술성, 글을 쓸 때에 작용하는 기술성, 하나의 텍스트를 구성할 때에 작용하는 기술성으로 구분하고 있다.³²⁾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첫 번째의 경우는 어떠한 사실을 전달하고자 하는 글쓰기로, 두 번째의 경우는 작자의 인식체계

를 적절히 표현하고자 하는 글쓰기로, 세 번째의 경우는 의도적인 글쓰기를 위해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기술성의 층위를 나라심한의 견해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되, 순서에 따라 ‘기록을 통한 기술성’, ‘표현을 통한 기술성’, ‘구성을 통한 기술성’이라고 구분해 부르려고 한다. 기술성의 층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동명왕편>은 한 작품 속에 세 가지 층위를 모두 포괄하는 특징적인 작품이다. 이제 이러한 세 가지의 면을 살펴보자.

1) 기록을 통한 기술성

이규보가 <동명왕편>을 창작한 동기 중의 하나는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에 전해 오는 동명왕의 ‘신이지사’가 인멸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고자 해서이다. 그것을 기록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자.

이규보는 병서에서 동명왕의 ‘신이지사’에 대한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의 기록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구술하는 것보다 자세하였다고 하였다. 배운 것 없는 미천한 신분이어서 문자문화와 접촉할 기회가 없는 우부애부들조차 능히 동명왕의 신이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고대 건국신화로서의 동명왕신화의 온전한 모습을 지니기 어렵다. 옹(Ong)이 말한 것처럼 구술사회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끈기 있게 습득된 것을 몇 번이고 말하는 데에는 대단한 에너지가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³²⁾ 이러한 사실로 인해 구전되는 이야기의 내용은 기록되어 전해 오는 내용과 차이를 지닐 수밖에 없다.

32) R. Narasimhan, ‘Literacy : its characterization and implications’, 김현주, 앞의 책, p.18.에서 재인용.

33) 월터 J. 옹, 앞의 책, p.67.

그렇다면 우부애부들이 구술한 것보다 더 자세하다는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의 ‘신이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가? 또 김부식이 ‘합리적인 역사 인식’에 의해 『삼국사기』에서 생략한 것은 어떤 내용일까? 이 두 가지 내용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고구려 건국 신화의 주요 신격인 해모수를 대상으로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해모수신화는 부여의 한 갈래로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고구려가 후발 국가로서의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 채택한 부여족 공통의 원초적 신화가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³⁴⁾ 이러한 해모수는 『광개토왕비문』 이후부터 『삼국사기』 이전의 어느 시점에 필요에 따라 고구려 건국신화 체계 속에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고구려 소멸 이후 고려 초에 편찬된 『구삼국사』에 수용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적 의도에 따라 설화적 요소들의 과감한 습합을 통해 기존의 신화의 재구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모수 전승도 편입되었으리라 본다.³⁵⁾

문헌 건국신화에는 습합된 설화의 모습이 반영되기 쉽겠지만, 구전 건국신화에는 구술성이 갖는 보수성이나 전통성 때문에 습합된 신화가 그때그때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우부애부들이 말하는 동명왕신화는 해모수신화가 습합되기 전의 원초적인 모습을 상당히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해 고려 초의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에는 습합된 해모수신화가 제대로 수용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어리석은 백성의 구술과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 사이에 ‘신이지사’의 양적인 차이가 있게 된 것이다.

김부식은 국사를 ‘重撰’한 동기로서 “『古記』에는 글이 거칠고 사적의 누락이 많음”³⁶⁾을 내세우고 있지만, 중찬의 동인은 이 외에도 있다. 김부식의

34) 박일용, 앞의 논문, 앞의 책, p.455.

35) 조현설, 앞의 책, pp.263~265.

36) “古記, 文字蕪拙, 事迹闕亡.”, 『進三國史記表』.

『삼국사기』에 와서는 신화 인식, 혹은 신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였으며, 이러한 ‘합리적인 역사 인식’도 ‘중찬’의 동인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 당시의 유학자들은 우부애부들이 말하는 동명왕의 ‘신이지사’를 두고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신이성을 ‘회의’한다. 이러한 회의의 결과, 고려 초에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를 통해 일단 완결된 건국신화가 ‘특별한 의도’의 개입에 의해 다시 변이를 일으킨다. ‘중찬’이 갖는 의미를 의도에 따른 변형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규보가 지적한 것처럼, 『삼국사기』는 『구삼국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신이지사’를 간략히 하는 방향으로 축소했다. 이러한 이규보의 지적은, 역으로 김부식이 과소평가한 ‘신이지사’를 『구삼국사』를 근거로 복권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의 기록을 5언 고율의 <동명왕편>에 어떻게 담아 전할 것인가? 기록성에 대한 이규보의 고심은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를 <동명왕편>에 註의 형태로 담음으로써 실현된다.³⁷⁾

오늘날 국문학계나 국사학계에서는 <동명왕편>에 부기된 細註의 내용은 현재 전하지 않는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의 원모습과 거의 같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³⁸⁾ 이러한 입장에서 <동명왕편> 세주에 인용된 『구삼국사』의 내용은 귀중한 사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규보 정도의 문장력과 자존심이라면 그 원문을 <동명왕편> 산문부에 그대로

37) 김승룡 교수는 <동명왕편>이 시와 함께 自註를 포함한 형태로 창작되어지는 데엔 나름의 창작상의 고민이 깔려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동명왕편>의 註의 기능에 대해, “의미의 정확한 전달과 왜곡의 방지”에 있다고 보고, 이것을 시적 진실성의 문제로 이해하였다. 김승룡, 앞의 논문, pp.29~33.

38) 박두포 교수가 <동명왕편>의 分註들을 輯錄하여, 그 가운데 동명왕 설화가 아닌 내용을 제외하는 한편, 이음이 잘 안되는 대목을 보완해 『동명왕본기』의 복원을 시도한 바 있다. 박두포, 앞의 논문, pp.8~13. 박 교수의 복원본은 동명왕 설화의 원모습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웁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동명왕편>의 산문부는 이규보가 구비·문헌에서 널리 수집·정리한 결과를 조정·집성하여 기술한 이규보의 문장이요, 그의 창작이라 하여 무방할 것이라는 견해³⁹⁾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구삼국사』가 당대에 벌써 稀本이 되었다고는 하나, 그 책을 ‘직필지서’라고까지 한 이규보로서는 거기에 실린 『동명왕본기』를 놓아 두고, 구비·문헌의 자료를 모두 망라하여 자기의 문장으로 별도의 <동명왕전>을 창작하여 <동명왕편>에 부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 표현을 통한 기술성

이규보는 <동명왕편>에서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의 내용을 註로 부기하는 방법, 즉 ‘기록을 통한 기술성’에 의해 창작목적의 한 가지를 달성하였다. 이제 이규보는 <동명왕편> 본시를 지움에 더 이상 기록성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시적 표현에 있어서도 보다 자유로워지면서 천하 사람들의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다양한 표현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규보는 산문을 단순히 시화하지도 않았으며, 표현상의 어려움 때문에 註로 처리하지도 않았던 것이다.⁴⁰⁾

<동명왕편>의 표현성을 이해하기 위한 전단계의 작업으로서, <동명왕편> 본시에는 『구삼국사』의 동명왕 설화가 어느 정도 수용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종문 교수는 <동명왕편>에서 동명왕 설화를 수용한 비율을 인물별로 살핀 결과, “동명왕 설화 가운데 해모수와 관련된 것은 높은 비율로 작품 속에 수용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주인공인 동명

39) 사채동, 「<동명왕편>의 회곡적 성격」, 『고전회곡연구』 제1집, (한국고전회곡학회, 2000), p.126.

40) 선행 연구에서는, <동명왕편>은 산문으로 된 동명왕신화를 五言古律의 형식으로 바꾸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으며, 시로 표현하기 적합하지 않거나 곤란한 부분을 註로 처리했다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신용호, 앞의 논문, p.60.

왕의 경우는 그 수용 정도가 해모수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유리왕은 거의 무시되고 있다.”⁴¹⁾고 하였다. 이어서 이 교수는 이규보가 <동명왕편>에서 동명왕 설화를 선택하고 서술하는 방향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합리적인 일보다 초월적이고 비현실적인 神迹에 선택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구려 창국의 신이성을 크게 강조하는 쪽이라고 하였다.⁴²⁾ 이처럼 신이성이 강한 해모수의 비중이 높은 것은 천손으로서의 동명왕의 ‘혈통’이 그만큼 고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해모수의 신이는 <동명왕편> 본시에 충실하게 수용되고 표현된다. 그 예로서 하백과 해모수 간의 변신경쟁 대목을 들어보자. 하백이 허락도 없이 자신의 딸을 취한 방자한 해모수에게 “왕이 천제의 아들이라면, 무슨 神異가 있는가?(王是天帝之子, 有何神異)”라고 묻고서 서로 간 변신경쟁을 벌이게 된다. 하백이 잉어로 변하자 해모수는 수달로, 하백이 다시 사슴이 되자 해모수는 승냥이로, 하백이 꿩이 되자 해모수는 매로 변신하여 승리한다. 이 변신경쟁 장면은 <동명왕편>에서 가장 다채롭고 역동적인 부분인데, 본시에는 동명왕 설화를 충실히 수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동명왕편>에서 보이는 이러한 神異는 “天孫의 정체성을 입증하는 표징”⁴³⁾으로서 작동된다.

해모수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충실한 표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외는 다른 표현양상들이 보이는데, 먼저 관련기록⁴⁴⁾을 제시한 다음, 대비·고찰해 보자.

41) 이종문, 앞의 논문, 앞의 책, p.43.

42) 이종문, 같은 논문, 같은 책, 같은 곳.

43) 박성지, 앞의 논문, p.281.

44) ①은 <동명왕편> 세주, 즉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를, ②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1, 『시조 동명성왕』을, ③은 <동명왕편>의 본시를 가리킨다.

① 漢神雀三年壬戌歲, 天帝遣太子, 降遊扶餘王古都, 號解慕漱, 從天而下, 乘五龍車, 從者百餘人, 皆騎白鵠, 彩雲浮於上, 音樂動雲中, 止熊心山, 經十餘日始下, 首戴烏羽之冠, 腰帶龍光之劔, 朝則聽事, 暮即升天, 世謂之天王郎。

② 其舊都, 有人不知所從來, 自稱天帝子解慕漱, 來都焉。

③ 漢神雀三年 한나라 신작 삼년
 孟夏斗立巳 첫여름에 복두가 사방을 가리킬 때,
 海東解慕漱 해동 해모수는
 眞是天之子 참으로 하늘의 아들인데,
 初從空中下 처음 공중에서 내려오는데
 身乘五龍軌 자신은 다섯 용의 수레를 타고,
 從者百餘人 따르는 사람 백여 명은
 騎鵠紛綽褱 고니를 타고 깃털 옷을 화려하게 입었는데,
 淸樂動鏘洋 맑은 풍악 소리 쟁쟁하게 울리고
 彩雲浮旖旎 채색 구름은 몽게몽게 뿔다.
自古受命君 옛날부터 천명을 받은 임금
何是非天賜 그 누가 하늘에서 내려주심이 아니리요마는,
白日下青冥 대낮 푸른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從昔所未視 옛적부터 보지 못한 일이네.
 朝居人世中 아침에는 인간 세상에서 살고
 暮反天宮裡 저녁에는 천궁으로 돌아간다.
吾聞於古人 내 옛사람에게 들으니
蒼穹之去地 하늘에서 땅까지의 거리가
二億萬八千 이억만 팔천
七千八十里 칠백 팔십 리.
梯棧躡難升 사다리로도 오르기 어렵고
羽翮飛易瘁 날개로 날아도 쉽게 지치는데,
 朝夕恣升降 아침저녁 마음대로 오르내리니
此理復何爾 이러한 이치가 어찌 다시 있을까.

이상은 해모수가 하강하는 대목이다. ①에서는 해모수가 천제의 아들이며 하늘에서 내려 왔다고 하여 해모수의 신성성을 믿으면서 그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에 비해 ②에서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사람(有人不知所從來)”이라고 하여 그 출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칭 천제의 아들(自稱天帝子)”이라고 하여 해모수의 신성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해모수의 하강 부분을 대폭 생략하고 있다는 점에서 詳과 略⁴⁵⁾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해모수를 일개 떠돌이 정도로 묘사함으로써 그의 신성성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信과 不信의 문제로 귀착된다. 그러므로 해모수의 신성성을 믿고 있는 이규보로서는 그것을 믿고 있는 ①만이 아니라 不信하고 있는 ②까지를 접했기 때문에, 단지 ①을 詩化하는 데 그칠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②의 불신의 태도를 불식시키면서 ①의 태도를 드러내자면, ①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했을 것이다. ③의 밑줄 친 부분만큼 작자의 주관적인 입장을 첨가하고 있는 것이다. 해모수의 신성성이 확보될 때 동명왕의 신성성도 그만큼 확고해질 수 있는 것이니, 이와 같이 주관의 첨가된 표현도 결국은 동명왕의 신성성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이다.

① 王謂左右曰, 得而爲妃, 可有後胤.

② 時有一男子, 自言天帝子解慕漱, 誘我於熊心山下, 鴨綠邊, 室中私之, 卽往不返.

③ 王因出獵見	왕이 나가서 사냥하다 보고
目送頗留意	눈길을 보내어 자못 마음에 두니
茲非悅紛華	이는 곱고 아름다운 여인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誠急生後嗣	진실로 후사 얻는 것이 급했기 때문이네.

45) “金公富軾, 重撰國史, 頗略其事, 意者公以爲國史矯世之書, 不可以大異之事, 爲示於後世, 而略之耶.”, <동명왕편> 병서.

이상은 해모수가 웅심연 가에서 놓고 있는 하백의 장녀 유화를 만나는 대목이다. ①은 해모수가 유화를 보자 곁에 있던 신하에게 말한 부분이고, ②는 해부루왕 금와가 유화를 만나 내력을 묻자 유화가 대답한 것 중의 일부분인데, ①과 ②는 판이하다. ①에서의 해모수는 유화를 보자 王妃를 삼아 後嗣를 얻고자 하는 天王郎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음에 비해, ②에서의 해모수는 유화를 유인하여 단지 사육을 채우기에 급급한 치한 정도로 묘사되어 있다. 사육을 채운 뒤에는 여자를 버리고 어디론가 가서는 돌아오지 않는 ②의 해모수에게서는 윤리·도덕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①에서는 해모수의 신성성이 인정되고 있음에 비해, ②에서는 “자칭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고 한다.(自言天帝子解慕漱)”고 되어 있어 신성성이 여지없이 부정되고 있다. ②에서처럼 해모수의 신성성이 훼손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명왕의 신성성이 훼손되는 것이니, ②를 읽어 본 이규보로서는 ①을 시화하는 데 그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 ①을 시화하되, ②의 내용을 부정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니, ③에서 “곱고 아름다운 여인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후사 얻는 것이 급했기 때문이네.”라고 부연함으로써 해모수의 신성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했을 것이다. 이것은 동명왕의 탄생과 직접 관련된 것이기에, ③에서의 부연은 동명왕의 신성성을 애초부터 확실히 하고자 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다.

3) 구성을 통한 기술성

이규보는 병서에서,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를 읽고서도 처음에는 그 신성함을 믿지 않다가 나중에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이와 같이 이규보가 의식을 전환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그 근원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규보가 “漸涉其源”했다고 했을 때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이규보가 천하 사람의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수행

한 작업을 이해하는 것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이규보는 『동명왕본기』를 세 번 반복하여 탐독하고 완미하는 과정에서 동명왕의 일생이 ‘聖人の一生’의 전형성과 부합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규보가 병서에서 말한 그 ‘근원’을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규보는 ‘성인의 일생’의 전형성을 ① 신이한 징표 → ② 신이한 탄생 → ③ 신이한 행적 → ④ 신이한 승천의 연쇄체로 파악한 것 같다. ‘성인의 일생’의 전형성에 비추어 볼 때, 동명왕의 일생이 거기에 부합함을 알았다는 것이다. 이때 ① ‘신이한 징표’는 해모수를 통해, ② ‘신이한 탄생’은 유화가 해를 품고 주몽을 낳는 것을 통해, ③ ‘신이한 행적’은 동명왕의 신이한 여러 행적을 통해, ④ ‘신이한 승천’은 동명왕이 “하늘에 오르고 내려오지 않으니, 이때 나이 40이었다.(王升天不下, 時年四十)”는 기록을 통해 알게 된 것이다.

문제는 동명왕의 일생이 ‘성인의 일생’과 부합하므로 동명왕 또한 성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는 점이다. 해모수의 경우처럼, 적절한 대목에서 이상의 내용을 언급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규보는 ‘구성을 통한 기술성’의 차원에서 이 점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제부터 <동명왕편>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동명왕편>은 우리 민족 최초의 장편서사시라고 평가되고 있지만, 작품 전체가 서사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작품의 앞과 뒤에는 상당한 분량의 비서사적 부분⁴⁶⁾이 있다. 작품의 앞에는 중국 신화시대 여러 제왕들의 신이한 일이 언급되어 있다. 이른 시기에 장덕순 교수가 <동명왕편>의 구성에 대해 언급⁴⁷⁾한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이 견해를 답습하거나 아

46) <동명왕편>의 서사부분은 ‘해모수 → 동명왕 → 유리’의 3대기에 국한될 뿐, 그것의 앞뒤에 있는 각 부분은 서사성을 지니지 않는 비서사적 부분이다.

47) “이것은 영웅 동명왕의 탄생 이전의 계보를 밝히는 序章과, 동명의 출생으로부터 그의 입국, 종말까지를 묘사한 本章과 그리고 사업을 계승한 유리왕의 즉위까지의

니면 나름대로 작품을 分章해 보고자 하였지만, 이 비서사적 부분에 크게 관심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중원문화가 그려온 우주창조와 창세기적 신화”라고 하면서, 짚은 민족의식을 갈구하고 있는 <동명왕편>에서 이와는 상이하게 민족사의 여명을 중국에 기탁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며, 그것은 조상대대 전수되던 고유신화를 다시 찾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漢人의 창세기를 역사의 시발 앞에 끌어다 놓을 수밖에 없었다⁴⁸⁾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작품 앞의 비서사적 부분을 피상적으로 본 데서 나온 것이다. 1구부터 18구까지는 중국 신화시대 여러 제왕들의 개인의 단면을 제시하고 있을 뿐으로 서사성을 지닌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의미상으로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파악하면, 그 전체는 하나의 연쇄체가 된다. 1구~18구는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구~6구는 天·地·人 三皇을 위시한 제왕들의 탄생 전의 ‘신이한 징표’를 나타낸 부분이고, 7구~10구는 여절과 여추가 별에 감응되어 소호와 전육을 낳는 ‘신이한 탄생’을 나타낸 부분이고, 11구~16구는 복희·수인·신농·우임금 등이 이룩한 ‘신이한 행적’을 나타낸 부분이고, 17구~18구는 황제가 용을 타고 오르는 ‘신이한 승천’을 나타낸 부분이다. 그러므로 1구~18구는 ① 신이한 징표 → ② 신이한 탄생 → ③ 신이한 행적 → ④ 신이한 승천의 네 단계의 연쇄체로 정리된다. 이 ①→④로의 연쇄는, 이규보가 중국과 우리나라의 신화시대 聖人の 삶과 그들 傳記의 典型性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말해 준다. 이규보는 개인의 삶의 집합을 하나의 연쇄체로 받아들여 그가 이해한 ‘성인의 일생’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이규보가 병서에서 “세 번 반복하여 탐독하고 완미하여 점점

경로 및 작자의 소감을 부연한 終章의 三部로 구성된 서사시이다.”, 장덕순, 앞의 논문, 앞의 책, p.325.

48) 황순구, 앞의 책, pp.94~95.

그 근원에 들어가니, 幻이 아니고 聖이며, 鬼가 아니고 神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먼저 성인의 일생의 전형성을 생각하고 동명왕의 일생이 성인의 일생과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1구~18구는 “漸涉其源”이라고 했을 때의 근원에 해당되는 것이다.

필자는 <동명왕편>의 비서사적 부분은 잡박한 것이 아니라 각 부분마다 일정한 의미를 지니며 상호 대응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먼저 작품 머리에 나오는 비서사적 부분(1구~24구)을 크게 두 부분, 즉 ① 중국 상고 신화시대 여러 제왕의 신이한 일을 언급한 부분(1구~18구), ② 작자의 소감을 피력한 부분[이 부분은 다시 과거의 긍정적인 상황에 대한 것(19구~20구)과 과거의 부정적 상황에 대한 것(21구~24구)로 나뉜다.]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서사부분에 이어서 나오는 비서사적 부분(249구~282구)은 크게 네 부분, 즉 ① 병서의 내용을 詩化한 부분(249구~260구), ② 중국 한대 여러 제왕의 신이한 일을 언급한 부분(261구~272구), ③ 작자의 소감을 피력한 부분[이 부분은 다시 과거의 긍정적인 상황에 대한 것(273구~274구)과 과거의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것(275구~276구)으로 나뉜다], ④ 작자가 기대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황에 대해 읊은 부분(277구~282구)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규보가 비서사적 부분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배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들어간 결과, 서사와 비서사의 각 부분에 일정한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⁴⁹⁾

이처럼 <동명왕편>은 서사와 비서사의 각 부분이 유기적 관련을 맺고 짜여서 일정한 의미를 수행하고 있다. <동명왕편>의 이러한 구성적인 면은 ‘구성을 통한 기술성’이란 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본다. 김경수

49)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손정인, 앞의 논문, 참조.

교수는 <동명왕편>의 서장과 종장은 동명왕의 사건과는 별도로 구성된 것으로서 작가의 착상에 의해 짜여진 부분으로서, 작가의 의도적 구성⁵⁰⁾이라고 보았다. <동명왕편>의 비서사적 부분에 대한 김 교수의 시각⁵¹⁾은, 부분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필자의 시각처럼 각 부분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체를 작가의 일정한 의도에 의한 구성이라고 본 점에서 주목되는 견해라고 생각한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동명왕편>을 기술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병서를 검토하여 이 작품의 기술성의 성격을 이해한 다음, 작품에 나타난 기술성을 세 가지 층위에서 살펴, 그 총체적 의미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명왕편> 병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기술성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규보는 동명왕의 신이한 일이 인멸될 것을 두려워하여 기록하여 전하는 한편으로, 시를 지어 기술하여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임을 알도록 할 뿐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진술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규보는 <동명왕편>이라는 한 작품 안에서 ‘사실의 기록’, ‘의식의 전환’, ‘현실 비판’ 등 세 가지 면을 한꺼번에 실현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규보는 <동명왕편>에서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글쓰기의 기술성을 적극 의식하였을 것이라고 보았다.

다음으로, <동명왕편>의 기술성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특히 천하 사람의 의식을 전환시키려고 한 이규보의 말을 웅(Ong)의 견해와 관련하여 이

50) 김경수, 앞의 논문, p.102.

51) 김경수, 같은 논문, pp.101~102. 참조.

해하고자 하였다. 이규보는 천하를 향해 “우리나라는 본래 성인의 나라”라는 사실을 아무리 설파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의식을 전환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서 시적 기술(장치)을 통해 그들의 의식을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동명왕의 ‘신이지사’에 대한 믿음과 그에 따른 의식의 전환은 본격적인 쓰기인 <동명왕편>에 와서야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끝으로, 이규보가 ‘사실의 기록’, ‘의식의 전환’, ‘현실 비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명왕편> 속에서 시도한 기술성을 나라심한(Narasimhan)이 나눈 기술성의 세 가지 층위에 따라 살펴보았다. 각 층위에 따른 기술성의 의미는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규보는 <동명왕편>에서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의 내용을 註로 부기하여 기록하는 방법에 의해 우리 고대문화의 전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둘째, 이규보는 천하 사람의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동명왕편> 본지에서 해모수와 동명왕의 ‘신이지사’를 충실히 수용하여 시화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주관의 첨가’, ‘설명의 부연’ 등 다양한 표현을 시도하였다

셋째, 이규보는 서사시인 <동명왕편>의 앞뒤에 비서사적 부분을 넣어 작품 전체 안에서 유기적으로 기능하도록 구성함으로써 자신의 창작 동기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동명왕편>은 한 작품 속에 기술성의 세 가지 층위를 모두 포괄하는 있는 특징적인 작품이며, 이규보는 자신의 창작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김경수, 「〈동명왕편〉에 대하여」, 『동양학』 제21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1, pp.97~117.
- 김승룡, 「〈동명왕편〉의 서사시적 특질과 창작의식」, 『어문논집』 제32집,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993, pp.29~33.
- 김한규, 『고대중국적세계질서연구』, 일조각, 1981, pp.7~8.
- 김현주, 『구술성과 한국서사전통』, 도서출판 월인, 2003, pp.18~19.
- 노명호, 「〈동명왕편〉과 이규보의 다원적 천하관」, 『진단학보』 제83집, 진단학회, 1997, p.303. p.314.
- 노태돈, 「금석문에 보이는 고려인의 천하관」,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출판사, 1999, pp.358~361.
- 박두포, 「민족영웅 동명왕설화고」, 『국문학연구』 제1집, 효성여자대학 국어국문학연구실, 1968, pp.8~13.
- 박성지, 「〈동명왕편〉에 나타난 신이의 의미」, 『이화어문논집』 제20집, 이화어문학회, 2002, p.281.
- 박일용, 「동명왕설화의 연변양상과 〈동명왕편〉의 형상화 방식」, 『고소설사의 제문제』 (성오 소재영 교수 환력기념논총), 집문당, 1993, p.455.
- 박창희, 「이규보의 〈동명왕편〉시」, 『역사교육』 제11·12합집, 역사교육연구회, 1969, pp.184~187.
- 사재동, 「〈동명왕편〉의 회곡적 성격」, 『고전회곡연구』 제1집, 한국고전회곡학회, 2000, p.216.
- 손정인, 「이규보의 〈동명왕편〉의 구성양상과 작품의 성격」, 『영남어문학』 제13집, 영남어문학회, 1986, pp.323~344.
- 신용호, 「이규보의 〈동명왕편〉 연구」, 『어문논집』 제21집,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980, p.60.
- 윌터 J. 웅 지음, 이기우·임명진 옮김, 『구술문자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pp.67~69. pp.128~130.
- 이기백, 「삼국사기론」, 『한국사학의 방향』, 일조각, 1978, p.21.
- 이복규, 「동명신화와 주몽신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성과 검토」, 『국제어문』 12·13 합집, 국제어문학회, 1991, pp.199~222.

- _____, 『부여·고구려 건국신화 연구』, 집문당, 1998.
- 이정자, 『고대 중국정사의 고구려 인식』, 서경문화사, 2008, p.34.
- 이종문, 「<동명왕편>의 창작동인과 문학성」, 김건곤 외 공저, 『고려시대 역사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pp.3~61.
- 이지영, 『한국 건국신화의 실상과 이해』, 도서출판 월인, 2000.
- 장덕순, 「영웅 서사시 <동명왕>」, 『국문학통론』, 신구문화사, 1960, p.325.
- 전보옥, 「중국 고전 서사시의 고사 성립 배경(IV)-<장한가>로 본 당대 서사시의 발전 양상-」, 『중국어문학논집』 제28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04, p.328.
- 정구복, 『한국중세사학사(Ⅰ)』, 집문당, 1999, p.81.
- _____, 『삼국사기의 현대적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pp.12~18.
- 조현설,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 지성사, 2003, pp.263~265.
pp.369~374.
- 허세욱, 『고대중국문학사』, 법문사, 1986, p.412.
- 황순구, 『서사시 동명왕편 연구』, 백산출판사, 1992, pp.94~95.

Abstract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Literacy in <Dongmyeongwang-pyun>(東明王篇)

Shon, Jung-I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literacy in <Dongmyeongwang-pyu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Lee, Gyu-bo(이규보) intended to achieve in three aspects at once within the work : record of historic facts, conversion of consciousness and criticism in the reality. To achieve these three objectives, he divided his literacy shown in his work into three features: the literacy through the record, the literacy through expression and the literacy through composition. The meaning of literacy associated with each layer is as follows:

First, Lee, Gyu-bo appended 『Dongmyeongwangbonki』(동명왕본기) of 『Kusamkuksa』(구삼국사) by means of annotation in <Donmyeongwang-pyun>. In other words, he effectively delivered the traditions of ancient cultures through record of historic facts.

Second, to convert public awareness Lee, Gyu-bo faithfully express what Haemosu(해모수) and King Dongmyeong(동명왕) did. However, as circumstances demand, he tried to criticize in various ways through adding his thoughts and giving an amplification of his explanation

Third, Lee, Gyu-bo put 'root' grasped through 『Dongmyeongwangbonki』 of 『Kusamkuksa』 to embody in terms of the literacy through composition into non-descriptive parts back and forth.

Through the above studying, we understand that <Dongmyeongwang-pyun> was included three layers of literacy and Lee, Gyu-bo effectively used three literacy.

Key-words : Lee, Gyu-bo, Dongmyeongwang-pyun, the preface of Dongmyeongwang-pyun, the myth of Jumong, national epic poetry, Kusamkuksa, Samkuksaki, literacy.

손정인

대구한의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주소 : (712-715) 경북 경산시 유곡동 290번지

전화번호 : (053) 819-1313, 016-655-5914

전자우편 : sji@dhu.ac.kr

이 논문은 2010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0년 12월 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0년 12월 8일 게재 확정됨.
--